

법무부, 디지털 노마드(워케이션) 비자 시범운영 실시

- '24. 1. 1.(월)부터 해외 원격근무자들을 위한 디지털 노마드 비자 시범 운영 -

- 법무부는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(워케이션) 비자를 2024년 1월 1일(월)부터 시범운영합니다.
- 워케이션(Workation)이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하며, 현재 유럽, 중남미, 동남아시아 등 관광 국가 중심으로 워케이션 비자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에서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 이하로 체류할 수밖에 없었고, 체류기간이 지나면 한국에 더 머무르고 싶어도 출국하여야 했습니다.
- 법무부는 이러한 해외 원격근무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재직 경력과 일정 이상의 소득*을 증명하는 경우 관광을 하며 국내에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(워케이션) 비자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.

*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(GNI) 2배 이상(2022년 기준 연 8,496만원)

□ 디지털 노마드(워케이션) 비자는 해외에 있는 우리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, 동반가족도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. 또한, 현재 국내에 단기체류 자격으로 워케이션 중인 외국인들도 근무경력 및 소득이 충족되는 경우 국내에서 워케이션 비자로의 변경도 가능합니다.

※ 다만, 디지털 노마드(워케이션) 비자 소지자는 내국인 고용시장 보호 등을 위해 국내에서의 취업이 엄격히 제한되며, 국내 취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아야 합니다.

□ 디지털 노마드(워케이션) 비자 도입을 통해 고소득 외국인이 국내 여러 지역에 머물면서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며, 우리나라의 풍경과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

□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	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	책임자	과 장	김태형 (02-2110-4070)
		담당자	사무관	김재원 (02-2110-4059)



비자 신청

- 해외 각 재외공관(대한민국 대사관)

비자 발급대상

- **(발급대상)**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으로서 원격근무가 가능한 자 중 **1년 이상 동일 업종에 근무한 자 및 그 가족**
- **(연령)** 만 18세 이상(동반가족 자녀는 예외)

소득요건

-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(GNI)의 2배 이상인 자

2022년 기준 1인당 GNI	GNI 2배
4,248만원(월 354만원)	8,496만원(월 708만원)

의료보험 가입

- 체류기간 동안 병원치료와 본국 후송을 위한 보장액 **1억원 이상**의 개인 의료 보험 가입 필요

제출 서류

- 사증발급 신청서(별지 제17호 서식), 여권, 표준규격사진 1매, 수수료
- 재직증명서, 급여명세서, 계좌거래내역 등 소득 증빙 서류
- 범죄경력증명서, 개인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, 가족관계 증빙서류(가족 동반시)

국내 체류

- **(체류기간)** 외국인등록 시 입국일로부터 1년 부여, 1년 추가 연장 가능(최장 2년)
- **(취업활동)** 취업·영리활동 제한
- **(자격변경)** 단기체류 관광비자(B-1, B-2, C-3)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디지털 노마드(워케이션) 비자로 자격 변경 가능